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 상상력

도시발전



유병권

우리 사회에서 도시계획이 지고 가야 할 점이 너무 많다. 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손해 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어서 이해 조정이 쉽지 않다. 급격한 도시화에도 경제발전으로 인해 도시마다 뜰어고쳐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건축물이나 교통시설의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묘지나 쓰레기처리장 같은 낭비시설은 설치하는데 애를 먹는다.

협력적 계획과 지역발전

도시계획을 교향악에 비유하기도 한다. 제각기 다른 모양과 소리를 가진 악기를 조화롭게 연주하여 관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유사한 특성

도시계획의 자율성은 재정적 독립성에서 비롯되며 재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계획은 죽은 계획이나 마찬가지이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면 공공시설마다 훨씬 신중하고 투명하며 지역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설치할 것이다.

재정분권 못지 않게 행정분권 나아가 주민의 권한 강화가 관건이다.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보다 실질적인 분권화를 원한다면 지자체장의 권한보다 주민들의 권한강화가 더 중요하다.

운영 측면에서 보면, 첫째 지자체장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보강하고 부서 간 칸막이행정을 조정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관료제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상임의 형태로 공공건축가를 채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포함시는 전라부서를 신설하고 민간건축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이 부서를 통해 각종 계획 과제를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시각

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도시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그 결과 지난 4년간 총 30여 억 원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다.

둘째 지자체의 도시계획과정이 보다 더 개방된 논의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공식적인 절차 위주로 운영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보다 많이 만들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관련 공무원들의 시각과 자질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권력보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봉사가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자원으로서 지방대학의 기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대학이 지역사회의 도시계획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의 자원으로서 지방대학의 가능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건축정책기획단 부단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한나라 '호남 구애'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나라당이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6일 광주를 찾아 '호남지역 현상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주의 타파와 지역 현안사업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호남 구애'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2011년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통합으로 광주시민이 한나라당의 손을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여수엑스포 등 광주·전남 지역 각종 현안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번 광주회의에 대해 그 목적이 비록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지역의 목소리와 실상을 직접 듣고,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남과 한나라당 간의 소통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인은 한나라 지도부가 광주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신뢰를 잃은 정부와 정당은 도태하는 것이 진리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호남 민심을 얻으려면 진정성부터 보여줘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잠깐 얼굴을 비추고 공약 아닌 공약(空約)을 일삼는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호남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호남부터 마음을 열고 요구할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먼저 호남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말로는 호남을 배려한다면서 예산과 인사 등에서 철저히 소외시키고,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특정지역 편향 정치를 펼치는 이중적 행태로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구제역 전파 우려' 민노총 광주집회 안 된다

민노총이 29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산하 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와 전국 버스운수 노조원 등이 참여하는 금호고속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갖기로 한데 대해 광주시와 지역 경제단체가 집회 자체를 요청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이 지역 최대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인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집회를 가질 경우 지금까지 구축해 온 방역 체계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민노총에 집회 연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도 27일 "정적 지역으로 남아있는 우리 지역에 외국인 등 수천 명이 모이는 결의대회라면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집회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는 광주시와 광주지역 경제계 등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같은 견해를 밝힌다. 전남도와 일부 지자체들이 각종 행사를 금지하고, 설 귀성 자체를 호소하고 있는 게 각급의 현실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초긴장 상태다. 전남과 함께 청정지역이던 경남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예방백신마저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의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주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 고비인 설 연휴를 앞두고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비상사태에 민노총이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하더라도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다.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수많은 축산농과 공무원들이 반박없이 방역에 혼신을 쏟고 있는 마당에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다면 불안 정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없다.

민노총은 대의명분을 생각해 대회 개최를 자체해야 한다. 구제역과 AI보다 더 화급한 상황은 아니길 바란다. 민노총 등이 광주에서 집회를 가질 경우 지역 이미지가 강성으로 비춰져 오히려 중 행사를 금지하고, 설 귀성 자체를 호소하고 있는 게 각급의 현실이다.

無等鼓

승부차기는 축구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다. 다른 종목과 달리 점수가 많이 나지 않는 경기다보니 무승부가 많은데 승부를 가릴 수 밖에 없어 교육지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승부차기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에 의해서다. 1968년 유럽선수권대회 준결승과 결승전은 연장전까지 치렀지만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결국 승전은 재경기를 통해 승부를 가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승부차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70년 유럽의 클럽 대항전에서 첫 선을 보인 승부차기는 이후 메이저대회인 국가대항전에서는 1976년 유럽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처음 등장했고 월드컵에서는 1982년 스페인대회부터 적용됐다.

승부차기는 선수들에게는 잔인한 운명이나 다름없어 '11m의 러시아 룰렛'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많은 스타들이 승부차기 때문에 울고 웃었다. '말총머리'로 유명한 이탈리아 최고의 스타로

베르토 바조는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5골이나 넣으며 조국을 결승까지 이끌었지만 브라질과의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키커로 나와 허공으로 공을 날리면서 한순간에 영웅에서 역적으로 몰락했다.

승부차기는 나라별로도 인연과 약연이 있다. 역대 월드컵에서 독일은 4승 1무 1패로 불패의 신화를 쓰고 있는

가장 강한 팀이다. 반면 잉글랜드는 3번의 승부차기에서 모두 패해 약연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광주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월드컵 8강전에서 5대3으로 이긴 기쁜 기억이 있다.

25일 열린 아시안컵 한일전 승부차기 결과를 놓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나이 어린 선수들이 ▲부담감이 많은 한일전에서 ▲후순위를 하더라도 어이없이 실축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결과를 떠나 경기를 즐기는 팬들의 관망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승부차기



종교칼럼

지장



연젠가 읽었던 책 속에서 이런 글을 보았다. 하와이인들은 어떤 바다를 향해 할지라도 방향을 잃어 버리는 일은 없다고 한다. 카누를 타고 큰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노 젓는 일에 열중하는 사이 한 사람은 시종일관 방향 잡는 일만 한다고 한다. 저들의 이 능력은 조상 대대로 이어받아 왔다고 한다.

한 그룹에서 이 점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와이인 한 사람을 대서양 한가운데로 데려가서 항해를 전혀 모르는 선원들과 함께 승선시켜 수백 마일 떨어진

될 것이다.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과의 차이는 단 한가지. 위대한 사람은 앞에 놓인 장애나 나쁜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전념한다는 사실이다. 장애물 앞에서 정신이 위축되거나 불안한 감정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가능성까지 막아 버리고 실패하게 된다.

일심(一心)을 통하여 나오는 위대한 힘을 잘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자기

일심(一心)의 힘

저 있는 섬까지 배를 인도했다고 한다. 물론 나침반 없이 한 사람의 감각 능력으로...

과연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다. 우리는 한 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결코 그 한 점을 떠난 일이 없다. 잠시 침묵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된다"라고

우리들은 이러한 능력을 영적 능력, 혹은 직관·영감이 표현한다. 나는 이 힘을 일심(一心)의 힘이라 말하고 싶다. 평소 우리가 마음을 일심으로 집중하는 훈련을 한다면 내면의 세계에서 무한한 능력과 힘이 솟아나고 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

자신의 생각과 입에서 나온 사념(思念)은 먼저 자기 자신의 심신을 관통하고, 자신의 심신에서부터 작용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먹었던 그대로 자기 자신부터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신이 발산하는 사념의 힘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자신의 심신 속에 들어가, 자신의 심신 속에서부터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성인의 말씀에 "선한 선물이든 악한 선물이든 선물은 주는 자에게 되돌아 오는 것이요.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는다고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이다. (무등산 증심사 주지)

기고

오주



민주당이 광주시와 당정협의회에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라는 당론을 주장하면서 조율이 나왔으나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견만 확인한 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상호간에도 호남과 충청 분당과 탈당 등을 거론하면서 갈등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깊은 내용에 빠졌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다. 이번 과학벨트 유치는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입지선정을 놓고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

과화, 응용기술, 산업화로 이어지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충청권-영남권을 묶는 삼각벨트 입지권이 순리라는 강시장의 발언에 적극 공감한다.

이 시점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맞가지 의문스러운 점을 묻고 싶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될 때까지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은 무엇을 했으며 8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가 중심을 잃고 편향된 당론을 결정할 때까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광주를 방치했는가? 뒤늦게 광주시와 민주당 지도부가 대립각을 세우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민주당론 우려한다

쟁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도 아닌 민주당이 성급하게 충청권 유치를 결정할 것은 당내 갈등 고조는 물론 민심을 도외시한 민주당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 준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민주당이 과학벨트에 대한 당론을 특정지역에 편향하여 결정한 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손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의 주인인 광주가 대국적 견지에서 충청을 크게 안아 달라"며 '호남 양보론'을 주장했지만 대국적 견지를 생각했다면 민주당은 더욱 철저히 중립이라도 지켜야 했다. 향후 대선 등을 고려해 충청권을 달래 주려는 정치적 논리는 너무나 낡은 정치이며 단세포적인 판단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충청권은 행정 중심의 행복도시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강연대시장의 주장처럼 호남권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광주는 기초

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향후 과장이 예상되자 급히 과학벨트 광주·전남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한 행보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를 높여도 반응이 무뎠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설득력을 상실한 뒷방 정치는 민주당이 표방하는 향후 정권교체도 걱정스러운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의 무능론까지 확산하고 있어 매서운 겨울날처럼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도 한랭전선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당론을 모으고, 지역 국회의원은 광주시민과 호남발전을 위해 보다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희망한다. <광주교통문화연구원장·전 광주시의회 의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학업 중단 학생 없게 대학 등록금 동결해야

정부가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상당수의 사립대학은 등록금의 3~5.1%가량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비용은 국민소득 대비 세계 2위로 자녀 두 명이 대학에 다닐 경우 근로자들의 연소득평균 40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소와 논을 팔아 대학공부를 시켰다'는 말처럼 이제는 정당한 가치를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등록금이 오르고 있다. 이로 인

해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돈벌이에 내몰리면서 휴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사립대는 법인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까지도 외면하면서 등록금의 상당수를 교육여건 개선보다는 적립금으로 차곡차곡 쌓아 놓는 등 자산 불리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나라가 어렵고 가계가 어려울 때 대학교 통분담 차원에서 등록금을 동결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

▲우도형·광주시 평산구 송정1동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